

# 양돈인 생존권 사수위해 길거리로 나선 양돈산업



하 태 식 부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우리 대한민국 양돈가족들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용어가 UR(우르과이라운드)·DDA(도하개발아젠다) 보다 이렇게 위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무역 협정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FTA 협상의 담보물로 돼지고기를 내놓고 흥정하고 있으니 울분을 삭힐 길이 없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때 양돈시장 잠식 및 우리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포도라는 품목 때문에 양보 아닌 양보를 하여 수입 돼지고기 시장을 내 주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체결은 한마디로 양돈업을 할 사람은 하고 그만 두려면 그만 두라는 식의 안하무인적 협상을 하여 우리 양돈인은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한·미 FTA 반대 집회, 우리의 생존권 대책요구, 목구멍에 피가 터지도록 외쳐 보았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정부·국회 문턱을 다녀봤자 약육강식의 논리보다 더 무서운 현실의 FTA 대책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 투쟁을 비웃거리기도 하는냥 이젠 다시 EU·FTA 협상을 5차까지 유럽, 한국을 오가며 진행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더해가면서 FTA 최대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양돈인의 결집된 한마음이 필요합니다.

## 양돈인 생존권 사수위해 길거리로 나선 양돈산업

우리 양돈인은 꺾기하여야 합니다. 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 양돈산업의 현실을 수치로 표현하면 농업 보조금 부문에서(단위 : 백만달러) 한국의 75배 수준, EU : 75,345\$/ 미국 : 33,948\$/ 일본 : 4,314\$/ 한국 : 1,768\$ 특히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WTO 규정에는 농업 보조국, 수출 보조국 정책을 규제하는데 EU 수출 보조금은 농업 보조금의 85~90%를 차지하며 돼지고기는 농업 보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FTA는 자유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EU 양돈농가는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경쟁 상대능가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미국 FTA와 같이 한·EU FTA를 체결한다면 이는 양돈을 포기하고 돼지를 청와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등에 몰고 오라는 협정으로 믿고, 우리 양돈인은 돼지와 부채를 내팽개치며 정부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라는 강한 꺾기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 양돈 산업은 요즘 경제 용어인 샌드위치기 아니라 망가진 빵튀기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올라가는 사료가격, 통제되지 않는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 우리의 식단에 수입산 농축산물이 판을 쳐도 식당 원산지 표시 제도를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 전업농 육성을 위해 도입한 등록제가 축산 농가의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축산 정책을 보아서는 우리 고유의 소, 돼지를 다 외국에 내주려는 현실에 망가지고 있는 양돈인 신세가 괜히 처량해집니다.

2007년은 황금 돼지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FTA 반대 투쟁을 위해 과천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신라 호텔 앞에서, 삼보 일배, FTA 장례식(상여도보), 1인 시위 등 양돈 협회 임원님들의 고생하는 한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 받아야 할 돼지가 길거리로 몰려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마지막 보루인 우리의 생존권 보전을 위해서 돼지 생산 안정제 가격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안하면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 봅시다. **양돈**